









'다이어트의 성정치' 저자 한서설아씨를 만나

## "외모로 인한 자존감 상실,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억압의 역사는 기부장제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블랜드로프의 비너스에서 볼 수 있듯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다면 그 문제보다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인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최근에 성형수술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덜 받기 위한 것 보다 자본주의 회복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성형수술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고비용, 수술의 안전성, 일반증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일적인 성형수술을 만들도록 인생 '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비'의 기준은 못 미치는 사람들을 위해 우울증, 좌절감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동력과 직결되었다는 시대. 여성의 생산능력은 미의 기준이 될 법하다.

기고 - 김유리 (서양·영어 97, 여학생위원회)

## 여자의 외모는 경쟁력?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억압의 역사는 기부장제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블랜드로프의 비너스에서 볼 수 있듯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의 성정으로 세계의 여성들은 사라져었던 그것은 오늘날 여성의 기준에 형편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동력과 직결되었다는 시대. 여성의 생산능력은 미의 기준이 될 법하다.

35·24·36를 향한 광신적 질주?

그런데, 으로 한국사회와 '비'에 대한 집착은 도를 넘어섰고 있다.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는 디어트와 성형수술. 많은 여성들은 목숨까지 걸고 수술과 디어트를 강행한다. 언론 매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더 나은 디어트

까지는 거짓말을 기미조차 넘기지 않는다. 심지어 디어트 산업은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꽃피고 있다.

뭐가 이길지 않은가? 미치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으로 질주하는 아슬아슬한 경지다. 그리고 '비'의 기준은 35·24·36를 향해, 광신적인 질주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모로 아름다움을 향한 죽음의 디어트에 살려온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가?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 보상도 없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자는 암울한 것이

다.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된다. 외모로 인해 취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옮겨지지 않아도 되며, 옷자켓에 가서 망신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친구들이 많아진다. 그 보상은 바로 개인의 외모에 대한 인정적인 목록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외로운 인간을 판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사회적 차별을 기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사회...

### 외로운 인간을 판단하는 사회

자본주의와 기부장제의 결합은 이처럼, 외모

가 인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품'으로서의 인간은 포장이 완벽하고 내용으로도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팔기 위해 자신의 표장을 분해하는 물건'이라는 표장, 식욕이 사라져는 압박, 자제법입수술... 심하면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까지 부자용도로 불구하고 디어트

열풍은 거짓말을 기미조차 넘기지 않는다. 심지어 디어트 산업은 남성들에게 확장되고 있다. 조금만 더 아름답게, 멋지게... 아름다움을 주려는 인간 본능이 '예술작품'이 아닌 바로 그 자체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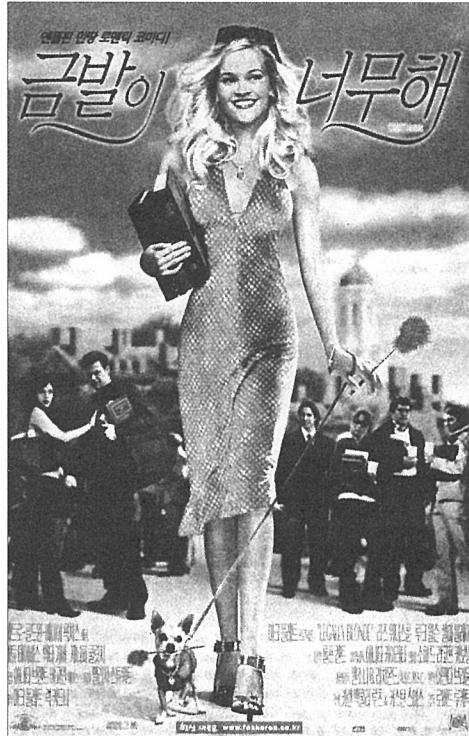
세계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60억 가치의

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마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집착과 사회적 강요에 의해 비슷비슷한 외모를

기계처럼 될 것이다. 세상에 30%의 비비안영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꿈꿔하지 않겠는가?

한번쯤 생각해 볼 임이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지 말이다.



영화 '금발이 너무해'는 외모 가꾸기에만 열중하는 의존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던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숨인다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여성들의 디어트는 단순히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이나 강한 권리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강한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몸이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무거운 지표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몸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권장되었다. 이렇듯 몸을 통해 남성과 차이를 극복하고 남성의 시선이 육체적인 대상이 될 때 여성들은 안정된 성형체성을 확보한다. 이것이 여성들의 디어트를 하게 아름다워졌다.

‘다이어트의 성정치’(2000년)라는 책을 통해서 위와같이 주장한 한서설아씨를 전화로 만났다.

66 외모지상주의의

여자친구가 민연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보로 인한 개인의 차운감 상실이다

여기 위한 노력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보로 인한 개인의 차운감 상실이다

”

희일화된 '비'의

기준을 다양하게

넓히는 노력이 필요

요하다. 단지 시작적인 아름다움을 '비'

라고 규정하는 분위기를 버려야 한다는 뜻

이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미인 미스코리아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비'적 감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제도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등을 통한 사회참여로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상대방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회인권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외모' 때문에 겪게 되는 차별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차별은 취업장에서 드러나는 경우와 함께 '외모'가 가디언 지지매김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장에서 '외모'는 딱지를 걸리는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제도적인 차별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외모로 인한 개인의 자

김영훈 기자

yonghun2000@hanmail.net

### 책과 영화를 통해 외모지상주의의 뒤집기

## 공주, 이뻐야만 해?



### 동화의 편견을 뛰어넘은

#### 「혹설공주 이야기」

「혹설공주」、「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에니시킬 한반도는 접해보는 행복한 결말의 동화들이다. 이런 이야기의 여주인공은 왕자로 대표되는 남들에게 선택을 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동화 속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반기를 든 「혹설공주 이야기」는 학교에 맞게 인물의 성격과 결말을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동화에서 지침십이 없고 질서가 심하게 그려진 여성의 모습은 「혹설공주 이야기」에서는 자력으로 성공하는 여성, 질투의 대명사가 아닌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로서의 여성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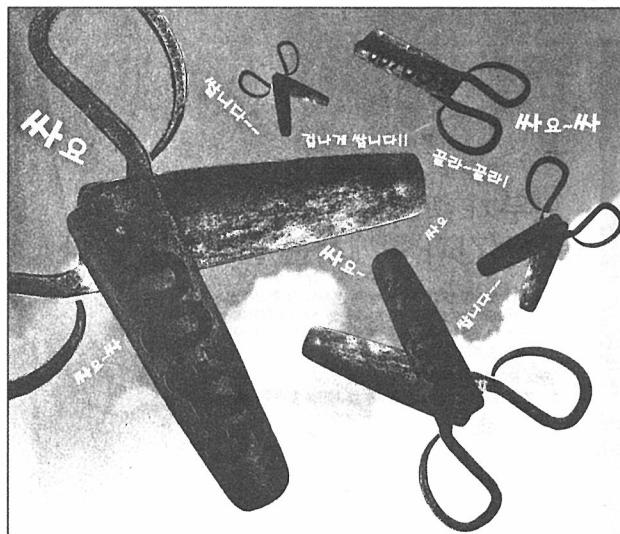
수학의 진정한 아름다움 찾기

민화영화 「미녀와 악수」의 미법에 걸린 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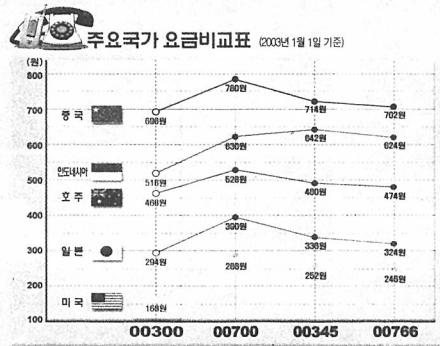
그는 미녀의 사랑을 받게되어 본래의 '아름다움' 모습으로 돌아와 사랑받는 이들과 행복하게 산다. 영화 '수학'에 등장하는 피오나 공주는 미법에 걸려 네에는 아름답고 밝은 흥한 모습으로 변하는 점에서 미녀와 악수는 점이 많다.

그러나 '미녀와 악수'는 비롯한 기존 동화나 영화와 같은 경계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피오나 공주는 정 반대의 모습으로 변한다. 영구적으로 흥한 외모를 갖게 된 피오나 공주는 슈퍼파의 사랑을 확보하며 진실은 외적인 미가 아닌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워준다.



다들 휴대폰에서 싸다고 하는데...

## 휴대폰은 물론, 일반전화에서도 가장 저렴한 국제전화는 00300



\* 실기비교표는 표준시간대 (본국시간)으로 환산한 요금비교입니다. (00300)의 요금은 출신국으로 계산됩니다.  
\* 요금은 일반 국제전화와 모든 휴대폰에서 동일하여 별도의 휴대폰 통화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타 국가에 대한 요금은 고액으로 번역되어 비싸습니다.

[고객센터 : 082-100]

국제전화,  
꼭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00300으로 걸자!

이용방법  
00300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상대방 전화번호  
예) 미국 LA의 123-4567로 전화하는 경우:  
00300 + 1 + 213 + 1234567  
\* 이용방법은 휴대폰과 일반전화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별도의 기기는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일반전화에서도  
가장 저렴한-  
**국제전화 00300**



‘3·1 민족대회’에서 만난 평양의 최은주 누나에게 보냅니다

은주누나. 궁금한 게 아직 너무 많는데...  
통이 되어 다시 만나면, 평양냉면 꼭 사줘야해!

나, 아직도 의아해. 어떻게 누나를 보고  
최근에는 라고 직감했을까. 누나는  
포효한, 밖에서 온 100여명의 사람들은  
는 환하게 웃으며 제이드그로브를 둘러쌌지.  
행사가 시작되고 경마장에 사진을 하려던 때  
들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화를 지나쳤어. 불  
은색의 회사한 한복을 입은… 와간 통통한 볼  
을 가진 한 여자가 눈길을 끌었어. 카메라에  
기록되자 연신 터지자니 소리같이 수줍어하던 한  
여자가. 까지기 저 사람에 아닐까 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르고. 행사가 끝난 후 난 누나  
에게 다가갔지. 인사를 건네며 “반갑습니다~”  
최은주라고 “안녕하세요!”라고 나는 살을 웃어.  
누나, 청계闸 화원민원이 열렸던 그 무궁화  
홀을 기억해? 저녁을 먹고 나랑 해진이는 이곳  
가 있는 태어나온 이에 여기를 찾고 있잖아.  
나이 지긋한 어른들 속에서 서둘러 걸어온 누나는  
누나보다 나이 어린 우리들이 모여 반기운을 표  
지했지. 잠깐만. 계단 위에 물어 들어온  
또 물어보던 그 시간들, 24년 전. 광양 모란봉구역  
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누나 말했지. 사무실인 어버자의 자금은 달양  
(집에서 쉬면서 물을 추스름하고) 계시는 어머  
니 사이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누나, 21살에 경  
암으로 암수증에 입원했다지. 24년을 품어온  
후 우리는 “청년학살문학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  
하는” 조선학생위원회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  
다고 우리들은 실세없이 질문했어.

들이 많이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조국통일 금새 오지 않았겠습니까?”  
“남쪽에서는 노루민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이북의 청년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음… 이제에도 불구하고 이희창이 대통령이 될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루민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보고 놀랐지요. 이희창이 대통령으로 되는 것보다 낫다고, 궁정적으로 보면 좋았습니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알고 있으나요?”  
“…난단 미안한군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  
“그럼요. 신문과 텔레비전으로 일부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참… 어떻게 그런 비난을 듣고 있습니까? 두 아들이 저처럼 살해한 미국에 대한 분노를 급히 느꼈겠지요. 미국은 역시 조상문화부터 우리나라를 뜯갈게 구는 외세일 뿐입니다.”

“이남의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온주누나와 기자가 같이 찍은 유일한 사진  
온주누나는 수줍어하면서도 사진 찍는걸 좋아하는 기색이었다.

무생버섯가

**최**은주·누나, 리고 불러라! 뭘까? 날 열린 세상에서 '누나'라고 부르게요!"하고 짐을 칠한 목소리로 내가 말하자, 허락한다는 표정으로 유태인을 찾았지만 그에게 함께 이동증명서를 드렸는 만남이었지만 그 후 계속 누나를 불 때마다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언제 이 편지를 벌지 못하겠지만 화를 풀고 싶어졌다."豁과 풍을 털 위한 3·1 민족대회', 서울을 위키백과 호텔에서 진행된, 해운, 처음의 남부전기공사에서 행사에서 대표단으로 참가했고, 행운으로에서 온 누나들 만났어.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누나는 나에게 척을 만났던 복수의 사람으로 기억될거야. 그렇게 기억되기는 개인이 모조리 짊어야 할 테지만.

**해** 사가 시작되었을 때까지 이어오기도 심장이 전혀 난지 않았어. 1년 째, 꼰나부역에서 유키워 호령으로 가기 위 해 테시를 짐을 데려온 바이로스는 누구는 누구는 살길이 아니라, 대신 안에서 나에게 헤리오는 밑으로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 어려울 허리에 헤어를 풀거나 하고 예쁘게 생각했었는지 사실을 알면 누군는 웃음을 듣는다. '동포들을 찾았어도 왜 멀쩡했습니까'라고 누나는 말았지만, 누도 서사를 모든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조금은 험담을 한다. 그렇지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너무 긴장해서 반항도 일컬어 거기 때문에 유키워는 대도에서 나에게 들플을 드는 그로스레스한 이미지. 대표단으로 참가했지만 내 목록은 거짓말이었고, 전국대학신문대회에 육전 배들은 내게 복수의 대회로 100점의 명단을 거둔

“기분이 어때?” 걸어가며 내가 물었어.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야….”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 말을 건넬지, 어떻게 이야기

**“서** 을에 온 느낌이 아세요?”  
“이 행사(3·1민족대회)를 함께 하  
는 걸 보니 이날에도 조국통일의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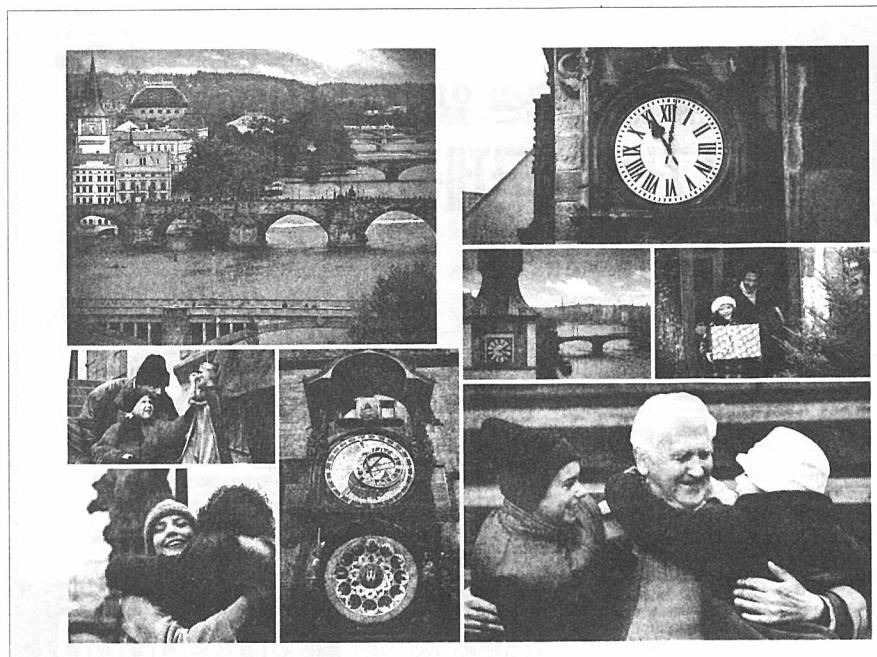
누나와의 만남이 너무 기뻐서였는지 나, 통일 연대 대표단들과 못하는 술을 취하도록 마셔서 결국 늦잠을 자 다음날 오전 일정을 함께 하지

행가는 사실상 누가나 만날 수 있는 미지막 시  
간이었지만, 그레데 이런 누는 그로 행가에서  
공연단이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설치된 천막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천막앞에서는 국립원 직원  
두 명이 버티고 서 있어서 무대 들어올 수 없었  
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설수로... 한가지  
누나, 난 2시간 남짓한 햄버거시간 내내 천막 옆  
에 앉아 있었어. 누나가 천막에서 나온모습을 기다  
리며 비를 맞고 서 있었지. 맨발, 누나가 천막  
앞으로 와서 무대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누나를 봄보고 난 무대 날 알아보았어.  
공연이 시작하기 직전이었으나 얼마나 멀렸을  
까. 나, 너무 목걸이를... 풍월이 고이 새겨진  
나무 목걸이를 누나에게 내밀었지. 선물이라  
온갖 비를 쳐 네 나를 떠나고. 그리고나면  
누나가 으르렁이로 활다. 우리를 지나보기였던  
국립원 직원의 손이 목걸이를 나이에게 살살이  
살피면서 누나의 손에 킥춰버렸지.

그때 그로도 사방을 팔았어. 살은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본질인지도 몰라 순수한 맘으로  
풀을 허시면 누나는 그걸 깊은 눈동자로 흘리고  
이 들여다보는 것. 내 일기장과, 가족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와 선물을 날카로운 눈으  
로 감시하는 것이 국보법일지도. 사실 내  
가 누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위  
반한 것. 그레데 나, 나의 법을 위반한다는 사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양창모 기자  
bufshan@hanmail.net



모두가 행복한 겨울,  
그 시간과 함께하는 철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투명한 햇살을 만나는 순간에도, 차 한잔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에도,  
오랜 친구와의 편안한 만남에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식탁에서도...  
을 지울려 더 많이 기뻐하세요. 당신에게 행복한 시간이라면  
그 시기고 함께할 희망은 더 행복하니까요.

순간이 모여 더 커지는 소중한 시간,  
그 시간과 함께하는 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알려주는 철이 있습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http://WWW.POSCO.CO.KR)





내가 피마하는 이유

## 대학이다! 자유다! 나 이제 파마할래~

자유다! 이제 교문 앞에서 테니스 채에 머리 길이 재는 학생주임 선생들도 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자 머리도 줄... 고등학교시절 8년은 너도나도 똑같은 생머리 스티커로 단순한 삶을 살았을 때... 새내기들이 하는 그때는 그래서 더욱 다르게 보인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의 머리를 따라 해보고 싶기도 한데 자신을 구속했던 어른들의 양장이 공부나 해외나는 진소리에 반향을 해보고도 싶을 것이다. 간위있던 블로그에서 막 벗어나게 된 이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변화의 욕구로 이제 드라이 표출되어 개성이라는 단어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학교 새내기들이 말해주는 파마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보자!

파마에 대한 편견의 첫 번째는 드리미에 나오는 여자 아이들은 대부분 파마이라리는 것이다. 파마이라리는 인상을 강하게 주기 위해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두 번째 남자들은 파마라 여자보다는 긴생머리의 여자들 좋아한다. 파마는 주로 아줌마가 하고 아줌마는 실용성을 따지는 부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다음은 포기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새내기들이 대학에 들어와 처음 하는 파마에 대한 인식도 이런 것일 텐데...

친구들끼리 우르르 물려가는 사이에 유난히 뛰는 한 학생이 있다. 김윤근(환경생명공학 03)군에게 있어 파마는 일종의 개성표현이다. 그는 축구선수 인정한이 됐던 일생 아줌마 파마를 하고 있어서서인지 스트로머를 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난히 한다. “센터 때부터 우리 과 평생이었어. 머리를 잘 뛰어서 전 인권같다고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리며 “율사와 20년 상담 끝에 나온 머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전에도 호피 파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그냥 엉망이기는 게 싫어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신체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파마상을 뚫는 것보다는 머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더 매력을 느꼈어요”라고 말한다. 미용비에 들어가는 돈에 있어서도 “남자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데 한 번 파마를 하면 한 달 머리를 관리하는 않아도 되니까 파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움을 위한 여성의 안내는 놀랄만하다. 우리는 여전히 처음 파마에 대한 관심은 한일 합방 이후 외국에서 새로운 문물을 보고 들어온 신여성으로 의해 시작되었다. 1933년 일본에서 미용연구를 하고 돌아온 오영주씨가 서울 화신백화점 안에 문을 연 화신 미용실이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이다. 그녀가 처음 파마를 사람들에게 해주기 시작하자 내노리하는 여성들이 찾아와 머리를 밟았으며 파마 같은 당시 글자기자 하나 깊고 악비수를 정도로 비었다.

작해미 기자  
gamzhiyemi@hanmail.net

태어난 03)양은 파마가 연예인과 동일시 하기 위한 한나의 방법이라는 편견에 대해 “사람들이 이 예언인이나 모델을 보지 않고서는 미용하여 머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참모화 뿐인 것 같아요”라며 “저도 학교에서 본 마음에 드는 머리스타일을 오려 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연예인과 똑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라고 말한다. 또 그녀는 “파마에 먼지들이 있는 별명이 생겼어요. 머리모양도 그런데다가 징거지랑 머리를 훔들며 춤을 쳤거든요”라고 말하며 머리 때문에 신변에 있다. 조인현(동유립·제코) 03)양은 자신이 예전에 자주했던 파마에 대해 “일종의 기분전환이나 버릇 같은 것 같아요”라며 트위스터라는 파마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머리를 불리는 비��미리들을 끌어들이니 하고 걸어가는 두 남학생이 눈에 띈다. 이들에게 있어서 파마는 그냥 유생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이정현(상경계열 03)군과 이준훈(상경계열 03)군은 “손님을 보고 나가기 시기도 많고 그들이 아깝고 남들 다 하나씩 해변에 가는데 흥사 뒤워지기 싫은 것도 있고요”라고 말한다. 그는 난생 처음 해보는 파마라 사람들이 찾아다보는 것은 느낌을 듣 때에는 괜히 쑥스럽다

고 한다. 예전에 파마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이 궁금해서 파마를 하는 학생도 있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엄태원(서양·사반 이어 03)군은 “손님을 보고 나가기 시기도 많고 그들이 보니 자신이 변화한 모습이 보고싶고 금곡 히기도하더라도”라며 “중·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머리나 생활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거 같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라고 말한다. 그는 웃음을 보고 가끔 여기저기 작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게되며 “것 같아지는 말도 한다. 마지막으로 “파마는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머리스타일이 점점 다르게 변해요”라며 그게 파마의 매력인 것 같다고 설명한다.

여자는 청순한 간생머리가 제일이다!라는 말도 아마 장윤호(동유립·풀란드어 03)군에게는 안 통할 듯 하다. 그에게 있어 파마는 곧

자신감이고 자기표현에의 담당함이다. 현재 호일 파마를 하고 있지만 큰로우, 드레드 등 평범한 남자들은 쉽게 용기 내어 시도하지 못할 머리들을 몇 일 단위로 바꾸기 때문이다. 파마하는 여자에 대해서도 “나 개인화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찾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말하는 그는 자신이 머리스타일을 자주 바꾸는 것도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해주신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와 누구나 한 번쯤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파마를 예전에 여러번 했었던 한 선배가 있다. 조인현(동유립·제코) 03)양은 자신이 예전에 자주했던 파마에 대해 “일종의 기분전환이나 버릇 같은 것 같아요”라며 트위스터라는 파마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머리를 끌어들이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소위 배우준 머리라고 불리는 비��미리를 들이거나하고 걸어가는 두 남학생이 눈에 띈다. 이들에게 있어서 파마는 그냥 유생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이정현(상경계열 03)군과 이준훈(상경계열 03)군은 “손님을 보고 나가기 시기도 많고 그들이 아깝고 남들 다 하나씩 해변에 가는데 흥사 뒤워지기 싫은 것도 있고요”라고 말한다. 그는 난생 처음 해보는 파마라 사람들이 찾아다보는 것은 느낌을 듣 때에는 괜히 쑥스럽다

고 한다.

예전에 파마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이 궁금해서 파마를 하는 학생도 있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엄태원(서양·사반 이어 03)군은 “손님을 보고 나가기 시기도 많고 그들이 보니 자신이 변화한 모습이 보고싶고 금곡 히기도하더라도”라며 “중·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머리나 생활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거 같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라고 말한다. 그는 웃음을 보고 가끔 여기저기 작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게되며 “것 같아지는 말도 한다. 마지막으로 “파마는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머리스타일이 점점 다르게 변해요”라며 그게 파마의 매력인 것 같다고 설명한다.

여자는 청순한 간생머리가 제일이다!라는 말도 아마 장윤호(동유립·풀란드어 03)군에게는 안 통할 듯 하다. 그에게 있어 파마는 곧



### 알아보자! 요즘 유행하는 개성파마는?

#### 여성들의 변신도구, 웨이브 파마

웨이브 파마는 생머리를 풍靡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미는 굽기와 방향에 따라 일반 웨이브, 내추럴, 위빙, 트위스트, 디아렉트, 퓨전파마 등 그동안 다양화했다. 7~80년대에는 절인 인간기 있고 소시한 아래부터 굽을 없이 발전되고 변화되었던 생각이다. 그 옥구는 아직도 8년은 넘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던 새내기들이 있어서 더한 간질같았던 것을 것이다. 예전에는 긴 생머리 여성들이 웨이브파마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머리 웨이브를 한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머리 길이에 제한이 없이 웨이브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파마가 유행이다.

#### 남성들의 웨이브, 베이비 파마

월드컵 국가 대표선수 안정환이 선보인 이후 급속히 인기 된 ‘베이비 파마’는 웨이브의 또 다른 형태이다. ‘내추럴 웨이브’는 머리가 한 방향으로 굽을 거리는 것에 비해 베이비 파마는 짧지만 아래쪽으로 굽을 거리며 머리를 풍靡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파마는 단발 이상의 머리 길이에 적합하며 윗통수가 날카롭게 아름다워 머리에 편안한 이미지를 더한다.

#### 세련된 부스스한, 호일 파마

본인 스스로 외상과 가장 어울리는 호일 파마는 머리카락을 부스스하고 헹개 있는 것의 특징이다. 호일로 머리카락을 미는 방식으로은 원래 머리를 놀려 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다. 월드컵 국가 대표선수 안정환은 내추럴 웨이브가 인기 예전에는 긴 생머리 여성들이 웨이브파마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머리 웨이브를 한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머리 길이에 제한이 없이 웨이브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파마가 유행이다.

- 3월의 테마 : 「꽃 [시·작]」



## “그대를 외대학보 기자로 임·명~하노라”

### “나, 살피기 편한 편 3 - 영광군”

- 편집실의 계획도, 경찰 폭넓은 민족인가?
- 전기의 영광은 어떤가?
- 꿈을 잊은 만한 책 영광인가?

### “나, 살피기 편한 편 4 - 청주”

- 기관별에 미친 속 미친기사를 풍靡해요.
- 청주인 백기에게 살피기에도 계단을 찾는다.
- 우리 청주인가?

내가 만드는 인터넷외대학보 아이홈산에 클릭하세요!

[www.ihufsan.com](http://www.ihufsan.com)

### 걸스 온 텁 (Girls On Top, 2001, 독일)

감독: 데니스 간젤 (Dennis Gansel)

출연: 다이애나 암프트, 펠리시티스 볼, 키롤리네 헤어페스

때: 3월 12일(수) 오후 5시 30분

곳: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 301호(3301)

빅토리아와 리나, 그리고 일렌은 단짝친구들이다. 사춘기 소녀인 그녀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바로 ‘첫 오류기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오류기증을 느끼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오르가즘’에 대한 그녀들의 관심은 점점 차운다.

▶ 다음 주 상영작-죽어도 좋아(박진표, 한국) 3월 19일(수) 오후 5시 30분 6111

\* 이번 학기부터 세계 영화제 준비위는 매주 수요일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문화 캘린더

#### 공연정보

##### 신입생 영화제

때: 3월 12일(수) ~ 14일(금)

곳: 서울비전미디어대학원 소강당(6105호)

주최: 영화 올림

문의: 02-961-4544 / 011-9994-0455

3월 4일 ~ 10일 : 웨인란 주연축제 24회 전시

3월 17일 ~ 23일 : 박현진 주연축제 22회 전시

곳: 세종문화회관 상상극 일상화당

전시장: 주연은 신인·영화를 건축하는 기틀에 부착해

어 건축학의 풍경과 운동을 더해주는 문예장

시공입니다.

#### 극장지 영웅전

때: 3월 17일까지

곳: 세종문화회관 미술관본관 1

기획: 일본·대학생 10,000원, 중·고생: 7,000원

초등생: 5,000원, 군인·경찰·경로대: 50%할인

단체관람(20명 이상): 1,000원 할인

#### 전시

##### 주연(柱연) 전시

때: 3월 4일 ~ 31일

